

길에서 만나는 역사와 풍경 … ‘우암동 마실길’ 조성

소막마을~동항성당~우암동 도시숲 1.7km
‘달 조명 포토존’ 인터넷 등서 화제

한국 근현대사의 애환을 스며있는 우암동 골목길과 도시숲을 잇는 ‘우암동 마실길’이 조성됐다. 소막사 커뮤니티센터에서 출발해 소막마을~내호냉면~동항성당~우암동 도시숲에 이르는 1.7km 구간이다.

우암동 127-142번지 일원에 조성된 이 펌프 산책길은 ‘갯길 좋은 부산’ 조성을 위한 2019년 도심 보행길 분야별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1년에 걸쳐 조성됐다.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동항성당 뒤 골목길에서 우암동 도시숲 입구의 보행로와 산책로를 말끔히 정비하고 전통정자와 달조형물, 경관조명 등을 설치했다. 특히 우암동 도시숲에 마련된 직경 2.5m의 ‘달 조명 포토존’은 현재 인터넷 등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우암동 마실길 준공식은 지난 6월 10일 우암동 도시숲 공원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 우암동 마실길 주요 포인트

소막마을

일제강점기 소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전에

검역을 진행하던 검역소와 소막사가 집단으로 있던 곳이다. 해방과 6.25 한국전쟁으로 귀환 동포와 피란민들의 집단주거지로 바뀌었다. 2018년 등록문화재 제715호로 지정됐다.

동항성당 성당의 붉은 주탑 위에서 두 팔을 벌린 예수상과 저 멀리 부산항대교의 환상적 야경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을 연상시켜 사진가들의 출사 장소로 유명하다. ‘판자촌의 성부’로 잘 알려진 독일인 신

부인 하 안토니오 몬시뇰이 1959년 본당 신부로 부임해 2017년 10월 선종할 때까지 60년 가까이 생활했다.

우암동 도시숲 영화 ‘라라랜드’의 언덕 장면을 연상시키는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도심 속 근린공원이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공동묘지로 형성됐던 곳을 무연고 묘를 모두 이장하고 2011년 지금의 도시숲으로 조성됐다. 언덕 정상에 달 크기의 136만분의 1로 축소된 달조명 포토존이 가장 인기가 많다. 문화관광체육과 ☎607-4067



강제동원역사관 징용 피해자 위패관 개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관장 박철규)에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냇을 기리는 위패관이 지난 6월 19일 문을 열었다.

역사관 5층에 조성된 위패관 ‘기억의 타’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위패 815위가 모셔져 있다. 역사관은 기억터 조성을 위해 국비 8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1097㎡ 공간에 최대 4000여 위패를 봉안할 수 있다. 기억의 터에는 위패 외에도 평화의 소녀상, 강제징용 노동자상 홀로그램, 강제동원 피해자 기증



사진, 추모 영상 등이 설치돼 있다. 관람은 휴관일(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 오후 2시 등 1일 2회 선착순 300명(회당)만 가능하다. 출입 시 발열 검사, 방명록 기입, 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 한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릴레이 인문학 특강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10월까지 매월 1회씩 강제동원을 주제로 한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오후 2~4시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역사관 홈페이지(https://museum.ilje.or.kr)에서 하면 된다.

특강 일자	내용	강연자
6월 27일(토)	태평양전쟁기 일제에 의한 한인 병력동원의 실태	김광열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 최영호 영산대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
7월 18일(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김요형 한겨레신문 기자
8월 15일(토)	일제의 자살특공대가 된 조선인 소년들, 그 아픈 역사를 보자	강해경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9월 19일(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	임재성 변호사
10월 17일(토)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권리로 만드는 과정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책임)	

유관 기관 소식

오토바이 법규위반 특별 단속

남부경찰서는 최근 배달서비스 확산으로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토바이 법규 위반자 특별 단

속을 실시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침범 △안전모 미착용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주요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 캠프더 활용과 경찰관 현장 단속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한다.

남부경찰서 ☎610-8353



버튼 누르면 문학이 ‘줄줄’

남구에 ‘문학자판기’ 놓는다

시·소설 등 1000건 수록… 7월 남구청·남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버튼을 누르면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의 일부 내용이 프린트 돼 나오는 문학자판기가 남구에 놓인다.

남구도서관은 바쁜 현대인의 문학작품 감상성을 높이고 독서 흥미 고취하기 위해 문학자판기를 7월 중순께 구청 민원실과 남구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할 예정이다.

키오스크 형태의 문학자판기는 사용

자의 버튼 선택(긴급/짧은글)에 따라 문학작품 일부 내용이 친환경 소재 종이로 무료 출력된다. 소설 500건, 명언 시 200건, 수필 300건 등 문학작품 1,000건이 탑재된다. 남구도서관은 문학자판기를 통해 독서의욕이 고취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구도서관 ☎607-6561

대연혁신지구 올맘도서관 개관

㎡, 장서 1,300권, 열람석 35석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열린 개관식에는 남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외에 캠프,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화관광체육과 ☎607-4067

학교 소식

배정미래고 등교개학 축하행사

배정미래고등학교(학교법인 배정학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늦은 등교개학에 맞춰 1학년 신입생이 첫 등교한 지난 6월 3일 등교맞이 행사와 제1회 먹거리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경영고에서 올해부터 교명을 배정미래고로 바꾸고 학교도 기존 경영, 금융, 창업경영고에서 미용, 디자인, 경영과로 개편했다. 먹거리한마당은 2020학년도 배정미래고가 추진하는 학교혁신사업 중 하나로 학생들의 인성



용당초등학교는 남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1,500만원과 학교운영비로 배움과 섬, 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 화단

■ 6·25전쟁 70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

남구에 잠든 ‘전쟁 고아의 대부’

7월10일 유엔기념공원서 위트컴 장군 38주기 추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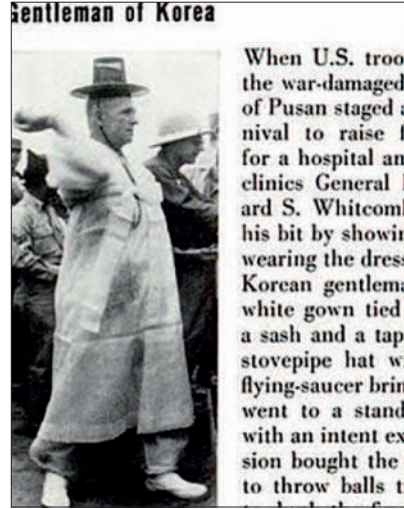
유엔기념공원에 영면한 2309명 유엔군 전몰용사 중 유일한 장성은 6·25전쟁 당시 부산 미군수기지사령관을 지낸 리처드 위트컴(Richard S. Whitcomb·1894~1982) 준장이다. 그를 말할 때 ‘한국 전쟁 고아의 아버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다.

위트컴 장군은 ROTC 출신으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했다. 1952년 부산 미군수기지사령관 부임을 계기로 부산과 한국을 돕는데 일생을 바쳤다. 특히 1953년 11월 27일 발생한 부산역전 대화재 때 군수물자를 풀어 이재민 3만명에게 천막과 음식을 나눠주었다. 이로 인해 장군은 미 의회 청문회에

불러가는 등 고초를 겪었다. 청문회에서 그는 “전쟁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한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War is not done with sword nor the rifle. Genuine triumph is for the sake of the people in the country)”라고 연설해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일화는 유명하다. 이밖에 전쟁 고아들의 진료를 위해 부산 메리놀병원 건물을 건립하는 데도 앞장섰다. 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한복을 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미국의 거리 캠페인을 가졌는데 이 모습이 미국 라이프지(1954년 10월호)에 소개되기도 했다.

전역 뒤 한국으로 돌아와 한미재단을 만들어 한국을 돕는데 여생을 보냈다. ‘죽으면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평소 유언에 따라 1982년 서울에서 타계한 뒤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2017년에는 한국인 부인 한묘숙 여사가 별세하면서 남편의 묘 옆에 합장됐다.

한편 위트컴 희망재단 주최로 오는 7월 10일 장군의 제38주기 추모식이 유엔기념공원과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열린다.



부산메리놀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한복을 입고 미국 거리 캠페인을 펼치는 위트컴 장군을 다룬 1954년 10월호 미국 라이프지 기사.

한반도 운명 바꾼 ‘오륙도대첩’

역사의 관심 못 받는 대한해협해전 70주년 전승기념식

지난 6월 26일,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가 남구의 창공을 가로지르는 축하비행을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축하비행이 대한해협해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대한해협해전은 6.25가 발발한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새벽 오륙도 인근 동해 앞바다에서 벌어진 남북간 최초의 해상 교전을 말한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에 앞서 수일 전 600명의 특수부대를 태운 무장수송선을 극비리 부산 앞바다로 내려 보냈다. 극비리 부산에 잠입, 게릴라작전을 통해 후방을 교란하고 부산항을 점령해 미군의 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었다.

선박으로 위장한 수송선은 순조롭게 동해를 거쳐 부산으로 접근하던 중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밤 10시께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PC-701)과 ‘우연하’ 조우했다. 이후 쫓고 쫓기는 추격전과 교전 끝에 다음날 새벽 극적으로 백두산함이 북한 특수부대원 600명을 태운 괴선박을 격침시켰다. 전투 도중 우리 측 수병 두 병도 전사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되는 이날의 승리 덕분에 최후의 교두보였던 부산을 지켜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이



지난 6월 26일 대한해협해전 전승 70주년을 맞아 오륙도 상공에서 축하비행을 하고 있는 블랙이글스.

가능했다. 인천상륙작전에도 투입돼 활약을 펼친 백두산함은 그러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1959년 7월 1일 퇴역 후 보존되지 못하고 해체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의 물길을 바꾼 한국전쟁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이 해상 전투는 6.25 관련 행사가 끝난 다음날 전승 기념식이 열려 언론과 일반인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한해협해전 70주년 전승 기념식은 생존한 참전용사 및 유가족, 부산지방보훈청장, 주한미해군사령관, 해군 장병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월 26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지지에서 열렸다.

을 조성했다. 화단 조성은 학교 여건과 학생들 정서에 알맞은 수종을 추천받아 조경 설계를 추진했다. 기존 화단 형식에서 탈피해 곡선 모양의 디딤석을 놓고 디딤석 주변에 배롱나무, 측백

나무와 함께 개화 시기가 각기 다른 화초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했다. 또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관 화단에 있던 가이츠가 한나무 10그루를 학교 담장 화단에 옮겨 심었다.